

동아시아 국제전과 신라의 통일

2017. 9. 21.

노태돈 *

1. 삼국통일전쟁의 동인

- 1) 야철기술 향상 - 철제 농기구의 보급 확대 - 농업 생산력 증대 - 촌락공동체 해체 - 삼국이 영역국가로 발전 - 관료조직의 확충 - 국가의 조직력과 동원력 강화 - 보다 많은 영토와 인민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 귀족들의 이해관계와 일치 - 병력 규모 대규모화 - 해를 이은 전쟁이 지속 - 삼국 간의 상쟁 격화 - 군국적 분위기
- 2) 300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왕조(수, 당) 출현 - 천하(전세계)를 복속시켜 통일 중국제국 중심의 일원적 세계 질서 구축 도모 - 북으로 유목민 국가들 정복 - 동으로 고구려를 침공해 옴.
고구려는 5~6세기에 유지되었던 다원적인 세력균형상태(복수의 나라들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려 함.
- 3)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삼국 간 갈등의 물결과 고구려와 당 간의 대결의 파도가 결합함에 따라 통일 전쟁이 본격화.

2. 전쟁의 발발 : 645년의 전쟁

- 1) 640년 당나라가 고창국(신강성 투르판)을 정복.
- 2) 641년 고구려에 사신 파견, 침공의지 노골적으로 피력. 고구려 상하에 위기의식 고조 - 당에 대한 방어전략을 두고 귀족들 간에 강·온파의 대립 격화.
- 3) 642년 7월 백제가 신라를 공격, 30여 성 공략
10월 평양에서 유혈 정변 벌어짐. 연개소문 집권. 이 해 연말, 신라의 김춘추 평양

*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한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역임
『고구려사 연구』(1999, 사계절), 『단군과 고조선사』(공저, 2000, 사계절),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2009, 집문당), 『삼국통일전쟁사』(2009,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고대사』(2014, 경세원) 등.

방문. 연개소문과 담판, 평화 협상 결렬.

- 4) 643년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압박, 신라가 당에 구원 요청.
- 5) 645년 당군의 고구려 침공. 초반전 당군이 우세. 고구려의 반격, 안시성 부근에서 대회전 : 양측이 각기 15만 동원.
고구려군은 중장기병 중심의 전술, 돌격. 당군의 장창보병대에 의해 저지됨. 이어 당군의 경장기병 중심의 전술에 의해 포위되어 대패.
- 6) 안시성 수성전(守城戰) : 안시성은 요동 평야에서 평양성으로 가는 진격로의 길목에 위치. 당군의 공격을 3개월 이상 저지. 고구려군 전열정비, 당군을 포위, 추위가 다가옴. 몽고고원의 유목민 집단인 설연타와 동맹 체결 - 당의 본부를 위협. 당군의 전면 퇴각.
- 7) 요동에서 고구려와 당의 전투가 치열할 때, 신라군의 북진. 이어 백제군의 동진. 신라군의 퇴각.
- 8) 왜국에서 정변(大化改新)이 일어남, 체제정비와 기존 정책(對唐政策, 친백제 위주의 기존 對韓半島政策 등)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

3. 전후의 각국 동향 : 합종과 연횡

- 1) **당** : 설연타 타멸.
고구려에 대한 장기 소모전 전개.
고구려 남부에 제2전선 구축 도모 - 신라에 주목.
- 2) **고구려** : 강거(康居)국과 동맹 모색. 우즈베키스탄 사마르탄트시 교외의 아프리카시 앞 궁전 벽화. 2명의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
- 3) **신라** : 김춘추 - 647년 왜국 방문 협상, 별 성과 없음.
648년 당나라 방문, 신라-당 동맹 체결
이후 신라는 왜국과 당의 관계 개선을 도와주며 왜국을 신라-당 편에 끌어드리려 시도.
- 4) **왜국** : 정세를 관망하며, 기존 친백제 노선 견지. 신라-당 동맹이 의미하는 중대성을 파악치 못함. 정세 파악에 어두움.

- 5) **백제** : 왜국과 고구려와의 우호 관계 유지에 주력. 정보력과 상상력의 부족. 당군의 바다를 통한 침공 가능성을 예상치 못함.

4. 660년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

- 1) 백제 멸망 직후부터 부흥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남.
- 2) 왜국은 부흥운동군에 물질적 군사적 지원. 4만 2천의 왜군이 한반도에 참전.
- 3) 백강구(白江口; 白村江) 전투와 주류성 공략전에서 패배, 부흥운동 종식, 다수의 백제 귀족 등이 일본으로 망명.
- 4) 백강구 전투 이후, 왜국은 신라-당 동맹군의 일본열도 침공 가능성을 크게 우려. 조선식 산성을 각지에 쌓는 등 방어책 마련에 골몰.
- 5) 당이 백제 영토 차지. 신라의 뭇은? 신라는 오히려 당군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 고구려가 존속하는 한 신라의 안보는 보장. 그러면 그 뒤는?

5. 668년 고구려의 최후

- 1) 백제의 멸망으로 고구려의 전략적 위치 크게 악화 - 남북에서 적을 맞음. 침략군은 겨울철 작전도 가능.
- 2) 연개소문 사망 이후 그 자식들 간의 내분, 큰 아들은 당에 투항,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로 투항. 지배층의 내분과 배신, 투항은 고구려인의 저항의지 꺾음. 투항 항복이 이어짐.

6. 신라-당 전쟁과 신라-일본 관계

- 1) 668년 9월 평양성 함락 직전에 신라사신이 왜국에 도착. 양국 간의 협상이 진전. 양국 국교 재개.
- 2) 669년 봄, 신라군의 당군에 대한 공격 시작 : 신라로서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당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 배후의 왜국과 우호관계 확립.

- 3) 일본 : 신라·당 전쟁으로 안보의 위협과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 국제적 지위 향상. 내정 개혁에 주력, 중앙집권적인 천황제 국가 건설.
- 4) 신라·당 전쟁의 추이는 신라일본 관계에 영향. 당과 신라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자, 일본은 점차 신라에 대해 일본의 우월적 지위에 승복할 것을 강요. 당과의 전쟁 중인 신라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함.
- 5) 676년 당과의 전쟁 종결 이후에도 신라는 당과 이면적 대립 지속. 당은 고구려와 백제의 왕손을 각각 고려 조선군왕 백제 대방군왕으로 봉해 수도에 유거(幽居)시킴. 때가 되면 재차 한반도로의 침공을 노림.
일본은 황제국 체제를 구축코자 함. 신라를 번국(蕃國)으로 간주. 그에 따른 의례와 의무 강요. 신라는 일본을 인국(隣國)으로 여기었으나, 당과의 대립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나마 응함. 긴밀한 교류 속에서 양국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관계를 지속.
- 6) 7세기 말 발해가 건국. 8세기에 들어 신라와 당의 화해. 이어 733년 당과 신라가 동맹을 맺어 발해를 공격. 신라의 전략적 지위 개선. 이에 일본과의 기존 관계에 반발, 양국 간의 대립과 마찰. 상대 국가의 외교 사절의 접견 거부 등. 755년 당에서 안록산의 난 터짐. 일본 조정이 발해와 동맹을 맺어 신라를 정벌하려는 계획 추진. 실패, 신라와 일본, 외교 단절. 이후 신라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을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삼음. 고려 조선으로 이어짐.
일본은 신라를 인국(隣國)으로 간주치 않고, 계속 번국(蕃國)으로 여김. 상대국을 인국과 번국으로 여기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근대에 까지 양국인의 의식의 기저에 이어짐.

7. 8~10세기 한국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시각

- 1) 대신라: 신라의 정복에 의해 二國 병합. '통일'을 부정. 발해사도 제외.
- 2) 통일 신라: 삼국통일 인정. 발해는 말갈족의 나라로 간주하여 제외함
- 3) 통일 신라와 발해; 삼국통일 인정, 발해사도 한국사에 포함. 중심은 신라에.
- 4) 후기 신라와 발해: 삼국통일 부정. 발해사를 한국사에.
- 5) 발해와 후기신라 : 발해에 정통성 부여.
- 6) 후기 신라론 : 발해사를 한국사에서 제외. '통일' 개념 부정.
- 7) 중국 고구려사론: 고구려사를 한국사에서 제외. 자연 '삼국통일' '통일신라' 개념 부정.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